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4), 47~63, 2022. 11. https://doi.org/10.17279/jkagee.2022.30.4.47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의 난민 내용 분석

김정숙* · 박선미**

Analysis of the Contents about Refugees in High School 'World Geography' Textbooks

Joung-Suk Kim* · Sunmee Park**

요약: 본 연구는 난민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세계지리」 교과서를 대상으로 난민에 관한 교육내용 구성의 특징을 분석하며, 내용 구성 기저에 깔린 난민을 보는 관점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난민은 4개의 대단원에서 다루고,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난민문제에 집중되었다. 둘째, 난민에 관한 교육내용은 발생 요인, 발생국과 수용국, 난민수용 찬반이유, 난민문제 해결노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셋째, 난민 80% 이상을 개발도상국에서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 난민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넷째, 난민에 대한 개념과 그 범위가 매우 모호하게 다뤄지고 있다. 다섯째, 복잡한 난민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다루고, 난민집단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였다.

주요어: 난민, 세계지리 교과서, 기후난민, 난민안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issues surrounding the refugee issu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osition of educational contents on refugees in the "World Geography" textbooks, and grasp the perspective of seeing refuge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fugees are covered in four major chapters. The content focused on refugee issues in Africa and Southwest Asia. Second, the educational content on refugees was organized around the themes of factors of occurrence, countries of origin and acceptance, reasons for and against refugee acceptance, and efforts to solve refugee problems. Third, although more than 80% of refugees are accepted in developing countries, it was described that developed countries are accepting most of them. Fourth, the concept and scope of refugees are being treated very vaguely. Fifth, the complex refugee problem was dealt with too simply and the refugee group was overgeneralized.

Key words: Refugees, World Geography Textbook, Climate Refugees, Refugee Security

I. 들어가며

2000년대 이후 경제 및 정치 위기를 겪고 있는 시리아, 예멘, 남수단 등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난민(refugee)이 급증하면서 난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난민수용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의 연례 보고서(202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난민은 8,930만 명으로 2011년 약 4천만 명을 기점으로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1] 난민이 8,930만 명에 달한다는 것은 세계 인구 100명 중 1명 이상이 난민이라는 의미이다. 지난 수십 년간 발생한 수많은 난민은 스스로 무국적자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요청받지

* 학익여자고등학교 교사·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과 박사과정(Teacher, Hakik Girls' High School), joungsukne@ice.go.kr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Inha University), sminha@inha.ac.kr

www.kci.go.kr

도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생존과 회복 그리고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다른 사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UNHCR, 2022).

현대 난민문제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글로벌리즘과 민족주의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가운데 전개되고 있다(손영화, 2019, 49). 개인이 난민에 대해 느끼는 감정 또한 인류 보편적 인권의 실천이라는 생각과 자국의 주권과 안보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하는 생각이 충돌한다.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신혜인, 2018에서 재인용) 한국은 난민 민간 후원 규모가 스페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민간 후원 중 개인 후원이 90% 이상을 차지했고 기업 후원은 10%에 못 미쳤다. 사람들은 매일 마시는 커피 값을 아끼고 용돈을 모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그리고 미얀마의 난민을 도왔다. 그렇지만 도움이 필요한 예멘 난민이 바로 우리 영토에 도착해 문을 두들기자 태도를 바꿔 그들을 가짜 난민, 잠재적 범죄자, 테러리스트라며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신혜인, 2018).

Langman(2011; 김갑철, 2018에서 재인용)은 코스모폴리탄 글로벌 시민성 관점이 기본적으로 세계 '타자'에 대한 환대 및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들을 어떻게 환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공간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는 순간 '경계'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정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멀리 있는 타자에 대해 관대하지만,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타자에 대해 경계하는 마음에 대해 마사 누스바움(2016)은 인간이 오염원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기방어 본능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기방어 본능의 일부를 혐오라고 하며, 이를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로 분리하였다. 원초적 혐오란 생물학적 본능처럼 인간이 자기 존재의 보존을 위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감정이며, 투사적 혐오란 사회적 학습과 경험, 관습 등을 통해 습득된 감정이다. 난민에 관한 부정적 정보는 그들에 대한 편견을 만든다. 사소한 편견으로 시작한 투사적 혐오 감정은 확대 재생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정적인 난민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노동력이 필요한 경제 성장기나 인권운동이 한창일 때 이주민에 관대하다가 경제 침체기에 그 시선이 차가워지고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는 선진국에서는 난민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경제활동 인구를 유지하여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하여 난민수용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추동한 세계화로 인해 선진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저개발국으로 옮겨가면서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자 그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특히 9·11테러 이후 난민을 안보 문제로 인식하였고 난민 유입을 테러 위험에 자국을 노출하거나 다른 위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난민수용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정부나 지역주민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Mogire, 2013). 한국도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단일법으로서 난민법을 제정해서 201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지만, 2020년 기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1.1%에 불과할 정도로(법무부, 2021) 난민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난민문제는 인권 보호를 중시하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난민에 대해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의 문제이자 수용국에서의 난민 지위 인정 문제, 수용국의 주권과 국제규범과의 갈등, 대규모 난민 유입에 따른 수용국의 안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문제다. 사람들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난민문제를 종종 접하지만, 대부분은 난민이 누구이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며, 왜 난민이 발생하고, 난민문제를 둘러싼 인권 문제와 안보 문제의 충돌 및 난민발생국과 주변 국가의 고민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난민 인권 문제와 난민수용을 둘러싼 글로벌 안보 문제의 쟁점이 두드러지면서 난민문제는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난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한 연구는 중학교「사회」교과서를 대상으로 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비중과 난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김보나(2016) 연구를 제외하면 많지 않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세계의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의 상호 관계, 그리고 문화, 정치, 경제 등 지역 내 여러 현상 간 연계성의 관점에서 세계 각 국가나 권역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시민성을 길러주도록 한 고등학교「세계지리」과목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난민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고등학교「세계지리」교과서를 대상으로 난민 교육내용을 구

www.kci.go.kr

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난민문제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4종의 「세계지리」 교과서를 대상으로[2] 난민에 관한 교육내용 구성의 특징을 분석하며, 내용 구성 기저에 깔린 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계지리」 교과서의 난민 교육내용 구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난민문제를 둘러싼 쟁점

1. 난민 발생 요인과 난민 지위 요건의 불일치

일반적으로 난민이란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국 내의 거주지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 난민의 개념은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이하 난민협약) 제1조 A(2)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

2012년에 제정된 한국 난민법에 제시된 난민도 대체로 난민협약에 준용하여 정의하고 있다. 난민협약상의 정의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국적국 혹은 상주국 밖에 있는 자로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고,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원하지 않으며, 이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은 자라는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난민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그 수가 급증하면서 난민협약에서 제시한 요건과 현실 간 괴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오늘날 난민은 개인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국가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기후변화의 결과, 빈곤과 굶주림으로 인한 불안전성, 테러, 그리고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실패국가(failed state)로 인해 발생한다(허영식·강현석, 2018, 21). Betts and Collier(2017) 또한 난민 발생의 결정적 원인으로 국가의 취약성을 꼽았다. 강한 정도의 박해에 이르지 못하는 인권침해나 무력 분쟁, 일반적인 폭력 상태, 혹은 파탄국가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안전을 찾아 도망치는 사람이 많다. 빈곤 상태를 벗어나 생계 수단을 획득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다. Adamson and Tsourapas(2019)는 일반적으로 자국 내 경제적 빈곤이나 곤경을 피하여 타국으로 탈출한 자를 경제적 난민이라고 명명했다.

빈곤 상태는 국가의 취약한 경제 구조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무력 분쟁이나 재해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분쟁상태는 경제활동의 둔화를 가져오고, 그 결과 생활곤란에 부딪힌 사람들은 새로운 삶터를 찾아 나선다. 지구 온난화, 사막화와 같은 기후 환경변화, 지진, 홍수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인간에 의한 재해 등 환경적 요인도 난민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오윤경 외, 2000).

난민협약에서 설정된 난민의 모습은 주로 개인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국가와 관련이 있다. 국제협약의 난민 규정은 난민의 자격요건을 매우 제한적이고 협의적으로 이해하여 현재 난민이 발생하는 여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박순용, 2015). 난민협약에 따르면 경제난이나 환경파괴 등에 의해 발생하는 비정치적 난민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으로 보호할 근거가 없다. 특히 환경난민은 그 정의와 유형이 모호하여 국제법상 난민으로 포함할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이신화, 2015, 228).

난민협약의 전통적인 개념 규정에 적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난민을 '생존이주자(survival migrants)'라는 별도의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허영식·강현석, 2018, 21). 취약한 국가나 실패한 국가에서 탈출한 많은 생존이주자는 난민들과는 아주 비슷하지만, 난민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종종 보호가 거부된다(Betts, 2013, 2-3).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현저히 박탈당한 생존이주자들에게도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난민 개념을 확대하고(손영화, 2019, 40), 난민협약에 언급된 박해의 공포 여부 이외에 다양한 이주 요인을 참작하여 난민인정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난민 범위 또한 분명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난민법 제2조에 따르면 난민을 설명하면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을 "난민인정자"라고 하고, 난민 요건을

www.kci.go.kr

충족하지 않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인도적 체류자"라고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신청자"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인 "재정착희망난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난민 범주가 "난민인정자"에 한하는지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 "재정착희망난민" 모두를 포괄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난민'이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모호한 상태다.

2. 저개발국에서 발생한 난민, 저개발국으로 몰려든 난민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난민은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 실패, 정치적 갈등에 의한 내란, 종교적 갈등으로 국민국가의 역할이 약화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저개발 국가의 국민이다(UNHCR, 2001). 전 세계 난민은 2021년 기준 8,930만 명이고, 2021년에 140만 명이 새롭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 난민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 나라는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로, 전 세계 난민의 69%가 이들 5개국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시리아는 내전으로 2021년 68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켜 세계 최다 난민 발생국이 되었다(UNHCR, 2022). 그리고 튀르키예가 380만 명을 보호함으로써 7년 연속 가장 많은 난민을 비호하고 있다.

난민이나 강제이주자들을 배출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종족 간 갈등, 내전, 정부의 박해나 구조적 폭력, 경제피폐, 인접 국가나 외부행위자에 의한 개입 등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얽혀 오랫동안 나타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이신화, 2017, 158). 국가 간 전투가 벌어질 때 민간인 사상자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직접적 공격 대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렇지만 정치권력이나 자원획득 등을 둘러싸고 한 국가 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집단들끼리 무력 분쟁을 벌이는 내전은 상대측의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량 학살이나 강간 등을 자행하는 등 민간인을 보복과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매우 심하다(이신화, 2017, 157; Caldor, 2013).

난민을 많이 발생시킨 아프리카 국가의 분쟁과 내전은 식민 지배의 부정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열강들은 이들 지역의 종족이나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힘의 역학에 따라 임의로 국경을 나누고 특정 종족을 내세워 통치함으로써 인종적·종교적·사회적 반목과 갈등을 조장했다. 이신화(2017)는 이것이 분쟁과 내전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고 하였다. 물론 식민 지배 전부터 지역 내 종족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특정 지배층의 착취가 심한 곳도 많았다. 그러나 문제는 서구열강이 식민 지배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악용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독립 후에도 불안정한 정치체제 속에서 반란과 쿠데타가 끊이지 않았고, 내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 과정에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정치는 더더욱 불안해졌으며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었다(이신화, 2017, 169).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난민발생국의 분쟁이나 빈곤, 환경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대다수 난민이 난민발생국과 유사하거나 더 불안정한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저개발국에서 체류하기 때문에 이들 저개발국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시급한 실정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난민의 83%는 개발도상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27%가 최빈국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전 세계 난민의 72%는 출신국의 주변국에서 체류하고 있다(UNHCR, 2022). 그러나 세계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개국(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이 받아들인 전체 난민 수는 5%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마저도 독일이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만약 독일이 난민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그 비율은 더 낮아졌을 것이다(OXFAM, 2016).

표 1. 난민 발생과 난민 비호 상위 5개국

난민 발생 상위 5개국	난민 비호 상위 5개국
1. 시리아(680만 명)	1. 튀르키예(380만 명)
2. 베네수엘라(460만 명)	2. 콜롬비아(180만 명)
3. 아프가니스탄(270만 명)	3. 우간다(150만 명)
4. 남수단(240만 명)	4. 파키스탄(150만 명)
5. 미얀마(120만 명)	5. 독일(130만 명)

출처: UNHCR, 2022.

www.kci.go.kr

난민발생국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인접국에 수용 한계를 크게 넘어설 정도로 많은 난민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오랜 기간 떠나지 않고 체류하면 이들 국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Smyer, 1985). 난민이 유입된 저개발국에 있어서 난민은 무력한 피해자라기보다 식량과 물 부족 및 열악한 위생시설 등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환경에서 자기들끼리 혹은 원주민들과 희소한 자원을 둘러싸고 갈등하거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경제적 부담을 주는 존재다. 예를 들어 시리아 난민 380만 명이 밀려든 튀르키예의 경우 난민 체류 기간이 길어지고 2022년에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되면서 난민들은 최저임금의 절반도 채 안 되는 돈을 받고 노예처럼 일한다고 불만에 차 있고, 튀르키예인들은 난민에게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분노하면서 난민문제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특히 호전적인 난민 전사(refugee warrior)들이 인접국으로 유입될 경우, 난민촌을 발판으로 출신국에 공격을 가하기도 하고, 유입국 정부가 정치적 고려로 이들 난민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경우, 출신국 정부가 유입국 반군을 도와 보복 공격을 할 수 있어 국가 간 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유입된 난민이 민간인 피해자인지 특정 목적을 띠고 난민으로 가장한 난민 전사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용국은 안보 문제를 내세워 난민 유입을 거부하거나 배출국으로 강제 송환하기도 한다(송영훈, 2014, 195-196).

예를 들어, 케냐의 다다브(Dadaab) 난민캠프에서 태어나 성인이 된 소말리아 출신의 난민들은 케냐 사회의 시민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케냐 정부는 자국 소재 알샤바브 테러 집단이 이들 난민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2022년 6월에 난민캠프를 폐쇄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난민을 위장한 전사들이나 테러리스트들이 인접국 난민캠프를 기지로 삼아 본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거나 수용국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이들 '난민 전사'들을 지원하고 출신국 정부가 보복 공격에 나설 경우, 난민문제는 인도적 사안을 넘어선 국가안보나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이신화, 2017, 160).

3.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와 주권국가 간 갈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보호에 관한 규범 형성 등 난민문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국제이주기구도 다양한 난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정 지역의 난민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도 있다. 대표적으로 팔레스타인 난민을 지원하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구, 아프리카의 난민문제를 다루는 아프리카 연합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난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국제기구가 있고 난민에 관한 국제규범이 있지만, 난민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권국가의 힘은 여전히 강하다. 유엔난민기구는 국가들이 모이는 장을 제공하고, 난민수용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있어도 주권국가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 난민협약은 난민수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며 난민인정의 판단기준은 기본적으로 수용국에 맡긴다. 각국은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난민수용 정책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난민수용 여부를 결정한다(손영화, 2019, 46-47).

2016년 유엔은 난민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난민 이주를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난민과 이주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하며, 교육과 근로를 통하여 그들의 사회통합을 개선하자는 사항을 담은 '뉴욕 선언'을 193개 회원국의 동의하에 통과시켰다. 뉴욕 선언에 따라 각국은 자국에 온 난민에 대해 강제적 본국 송환금지, 신체적 안전과 보호, 재정착에 대한 지원 등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만 난민문제는 수용국의 재정부담과 안보 문제 등 주권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국제사회가 뉴욕 선언을 지키라고 강제할 수 없다. 실제로 뉴욕 선언에서 제시한 야심차고 원대한 목표에 동의한 많은 국가가 오히려 난민수용을 거부하거나 난민보호를 방해하고 있다(허영식·강현석, 2018, 5).

난민문제를 둘러싸고 각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책무와 국가 주권 간 갈등이 발생한다. 각 국가 내에서 난민수용을 둘러싼 찬반 논리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난민수용에 찬성하는 입장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보호를 강조하고(송영훈, 2016; 안성경, 2017; 신옥주, 2018; 한종현·황승종, 2018; 박인현, 2021) 난민수용이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의 완화,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김원건·오종진, 2022). 그러나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은 난민의 수용이 국가안보에 미친 부정적 영향, 국가 경제의 부담과 범죄, 사회갈등의 유발 측면을 강조한다(고상두·김예슬, 2012; 석인

www.kci.go.kr

선·황기식, 2019).

이처럼 국가 수준에서 난민문제에 접근할 때는 갈등이 부각되어 해결책 모색이 어렵다. 난민 보호에 있어 국제사회의 노력과 더불어 지방 수준의 노력, 개인의 노력이 만나는 접점을 찾는 것이 해결책을 찾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Cooper *et al.*(2017; 임종섭, 2018에서 재인용)은 호주의 중앙 언론에서 난민문제를 다룰 때는 부정적 기사가 많았던 반면, 지방 언론에서는 난민들의 개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인간적이고 긍정적인 보도가 많았다고 하였다. 이는 삶의 공간에서 난민을 접할 수 있는 지역 수준에서 난민문제를 다룰 때 국가 수준에서 접근하기 힘든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해결책 모색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Ⅲ. 「세계지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대단원별 난민 내용

1. 「세계지리」 교육과정의 대단원별 난민 관련 성취기준

2015 개정 「세계지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는 난민을 직접 언급하기보다 국제적 인구 이주의 한 유형과 분쟁으로 인한 결과로 다루고 있다. 「세계지리」 교육과정은 총 8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난민은 'Ⅲ. 세계의 인문 환경과 인문 경관', 'Ⅴ.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Ⅶ.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Ⅷ 공존과 평화의 세계'라는 4개 대단원에서 다루고 있다. 난민을 다루는 4개의 대단원 중 2개의 대단원이 아프리카 대륙을 포함하고 있어 난민문제에 관한 내용과 사례가 아프리카에 집중되는 구조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대단원별로 난민을 다룬 초점이 다르다. 먼저 'Ⅲ. 세계의 인문 환경과 인문 경관' 단원에서는 국제 이주의 한 유형으로 난민을 조명하고 세계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문화 다양성의 가치와 문화적 소양을 기르도록 한다. 'Ⅴ.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단원에서는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사막화 지역과 요인을 조사하고, 사막화의 진행으로 인한 여러 지역 문제 중 하나로 난민문제를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Ⅶ.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단원에서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이 겪고 있는 분쟁 및 저개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난민을 언급하고 그

표 2. 고등학교 「세계지리」 단원별 성취기준 및 해설

대단원 / 성취기준과 해설	Ⅲ. 세계의 인문 환경과 인문 경관	Ⅴ.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Ⅶ.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Ⅷ. 공존과 평화의 세계
성취기준	[12세지03-02] 세계의 일반적 인구 변천 단계와 그 지역적 차이를 파악하고, 국제적 인구 이주의 주요 사례 및 유형을 도출한다.	[12세지05-03]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주요 사막화 지역과 요인을 조사하고, 사막화의 진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지역 문제를 파악한다.	[12세지07-0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국가들이 겪고 있는 분쟁 및 저개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주요 요인을 식민지 경험이나 민족(인종) 및 종교 차이와 관련지어 추론한다.	[12세지08-03]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지구촌의 주요 노력들을 조사하고, 이에 동참하기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에 대해 토론한다.
성취기준 해설	인구의 국제 이주와 관련된 동영상의 시청을 토대로 세계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문화 다양성의 가치와 문화적 소양과 같은 정의적 영역 및 가치·태도에 대한 평가 도구도 개발·활용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목축과 사막화,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 사막화로 인한 각 지역의 분쟁과 과제' 등의 소주제를 모둠별로 분담하는 방식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분쟁이나 저개발 문제를 식민지 경험이나 민족(인종) 및 종교 차이 등과 관련지어 추론하도록 한다. 소외되기 쉬운 원주민 혹은 지역민의 입장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며 접근하도록 한다.	경제의 세계화와 지구 온난화 및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나 협약, 국제 난민의 실태와 인도적 지원, 다양한 지역 분쟁에 대한 조정을 비롯한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노력을 학습하고, 동참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과 태도를 함양한다.

www.kci.go.kr

주요 요인을 추론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VIII. 공존과 평화의 세계' 단원에서는 국제 난민의 실태와 인도적 지원, 다양한 지역 분쟁에 대한 조정을 비롯한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노력을 이해하고, 이에 동참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2. 「세계지리」 교과서의 대단원별 난민 내용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4종의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난민을 다루고 있는 분량은 총 34쪽이다. 대단원별 난민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페이지와 분량은 출판사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난민의 실태와 인도적 지원을 다룬 'VIII. 공존과 평화의 세계' 대단원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III. 세계의 인문 환경과 인문 경관', 'VII.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V.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순으로 나타난다.

4종의 「세계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대단원별 난민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III. 세계의 인문 환경과 인문 경관'에서는 인구의 국제 이주유형으로 난민을 소개하고, 정치적 요인과 기후변화에 따른 난민 발생 사례, 난민의 이동 방향, 난민유입국에서의 난민수용에 관한 찬반 입장을 제시한다.

대단원 'V.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사막화에 따른 지역 문제로 난민을 다루기 때문에 사막화가 사헬지역의 식량 부족, 질병 증가와 분쟁 문제를 일으켜 기후(환경)난민이 발생한다고 서술하고 사막화로 인해 발생한 사헬지역 주변국의 난민 현황을 소개한다. 그리고 소말리아, 수단의 다르푸르 난민촌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참상과 구호 활동을 언급하고 있다.

대단원 'VII.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에서는 남수단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족(인종) 및 종교 간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난민이 발생한다고 제시하고 이 지역에서 발생한 난민 규모와 이동 경로 자료를 보여준다. 난민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아동이나 소녀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지원 방안을 제시한 교과서도 있다.

「세계지리」 교과서의 마지막 대단원인 'VIII. 공존과 평화의 세계'에서는 난민 개념을 제시한다. 앞서 3개의 대단원에서 난민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난민 개념을 마지막 단원에서 소개하는 것은 내용 체계 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본 대단원에서도 분쟁 지역과 난민 규모 및 국제 난민 실태를 소개하고, 난민문제 해결노력으로 유엔 난민기구의 역할을 제시한다. 여러 교과서에서 주요 유입국의 난민 현황을 소개하고 외국인 공포증과 관련 쟁점을 파악하며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난민수용을 둘러싼 찬반 입장을 제시한다. 이상에서 볼 때 대단원별로 난민을 다룬 초점과 내용 조직이 다르지만, 난민 교육내용은 발생 요인, 이동과 난민실태, 난민문제의 해결노력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IV. 자료유형별·주제별 난민 내용과 학습활동 분석

1. 교과서 분석 틀

교과서의 내용에 관하여 자료 유형별로 분량 분석과 난민주제별로 내용 분석을 한다. 분량 분석은 「세계지리」 교과서에 제시된 난민 주제와 하위항목을 추출한 후, 각 주제나 하위항목에 할애된 지면의 분량을 계산한다(표 5

표 3. 교과서별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의 난민 관련 분량(쪽수)

대단원 / 중단원 / 출판사	III. 세계의 인문 환경과 인문 경관	V.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VII.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VIII. 공존과 평화의 세계
	2. 세계 인구의 변천과 인구 이주	3. 사막화에 따른 지역 문제	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분쟁과 저개발	3.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노력
A	pp.78-79(2)	pp.136(1)	pp.175-177(3)	pp.200-201(2)
B	pp.72-73(2)	pp.136-137(2)	pp.175,177(2)	pp.196-197, pp.200-201(4)
C	pp.78-79(2)	pp.140(1)	pp.180,196(2)	pp.210-213(4)
D	pp.82-83(2)	pp.144(1)	·	pp.206-209(4)
계	8쪽	5쪽	7쪽	14쪽

www.kci.go.kr

표 4. 교과서별 고등학교「세계지리」교과서의 단원별 난민 내용

대단원 / 중단원 / 출판사	III. 세계의 인문 환경과 인문 경관	V.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VII.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VIII. 공존과 평화의 세계
	2. 세계 인구의 변천과 인구 이주	3. 사막화에 따른 지역 문제	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분쟁과 저개발	3.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노력
A	정치 요인과 기후변화로 인한 난민 발생	사막화로 인한 난민 발생, 소말리아 기후난민의 사진 제시	난민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지역별 난민 규모 지도화, 난민 아동 사진 제시	국제 난민의 실태와 난민의 개념과 유엔난민기구 역할 제시
B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아이티 난민의 이주 사례	사막화로 인한 식량 부족, 질병 증가 문제, 사헬 지대 주변국의 난민 현황, 다르푸르 난민촌의 모습	민족(인종) 및 종교 갈등으로 인한 분쟁 결과 난민 발생, 남수단의 난민 현황 제시	분쟁 지역과 난민의 수 지도화, 난민문제 해결노력으로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방안 제시
C	유럽으로 난민 이주와 이동 방향, 난민 규모, 이주유형 비교	소말리아 난민을 사례로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난민 구호 활동	난민 발생 원인과 지원 방안 제시하기 위해 난민 소녀 사례 제시	국제 난민, 외국인 공포증과 관련 쟁점 파악
D	독일에서의 난민수용의 찬반의 입장 비교	사막화에 따른 환경 난민 문제의 심각성 언급	·	주요 국가별 난민 현황의 지도화, 독일, 영국과 미국의 난민수용 관점 및 입장과 찬반 토론 활동

참조). 이를 통해「세계지리」교과서에서 난민 내용 중 어떤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분석한다.

분량 분석을 통해 특정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내용을 선정한 배경이나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를 간과하기 쉬우므로 질적 분석을 통해 교과서의 내용 혹은 분량에 투영된 난민에 대한 관점과 내용 구성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 대상인「세계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난민 관련 내용 요소는 크게 발생원인, 이동과 실태(난민의 발생국과 수용국의 현황), 난민수용을 둘러싼 찬반 이유 그리고 난민문제의 해결노력과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난민 발생 요인으로 민족·종교 갈등, 정치적 분쟁, 자연환경 변화가 거론되고,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한다는 기술도 많다. 난민의 이동과 실태는 주로 난민발생국과 수용국이 어디이고, 각 국가의 문제와 난민실태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난민수용의 찬반 논리 중 찬성 입장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보호를 강조하거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의 완화,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들고,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입장은 난민의 수용이 국가안보에 미친 부정적 영향, 국가 경제의 부담과 범죄, 사회 갈등의

표 5. 교과서 자료유형별 분량 산출 기준

자료 유형	의미	분량 산출 기준
본문 텍스트	사실이나 지식, 이론, 현상 등 학습을 위한 글 자료	• 줄 수 • 한쪽 지면에서 일부분만 해당하면 한쪽 총 행수를 분모로 하고 해당하는 행수를 분자로 나누어 계산
시각 자료	학습활동 질문이나 지시문 없이 제시한 그림, 도표, 사진, 삽화, 지도, 그래프, 연표, 신문 기사 등	• 교과서 전체 쪽 수 가운데 해당하는 분량 • 한쪽의 면적을 분모로, 실린 사진, 삽화, 도표, 지도를 분자로 계산하여 쪽수화
탐구활동 (읽기 자료, 탐구자료)	토론 활동, 조사 활동 등 학습활동을 안내하는 지시문과 탐구자료로 구성된 자료	• 교과서 전체 쪽 수 가운데 해당하는 분량 • 한쪽의 지면에서 일부분만 해당하면 한쪽의 총 행수를 분모로 하고 해당하는 행수를 분자로 나누어 계산

출처: 강순희(2022)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함.

www.kci.go.kr

유발 측면을 강조한다(고상두·김예슬, 2012; 석인선·황기식, 2019). 난민문제의 해결노력과 정책은 개인적 수준과 지역, 국가, 세계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대체로 개인적 수준에서의 난민문제 해결노력은 인권으로서 난민 권리 인식과 난민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강조하고 지방 정부 수준의 노력은 난민 정착을 돕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 국가 수준에서는 난민수용을 둘러싼 법적·정책적인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세계 수준에서는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엔난민기구의 역할 및 유엔평화유지군, 국경없는 의사회 등 비정부기구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2. 자료유형별 분량 분석

난민을 다룬 텍스트 자료는 총 167줄이었으며 항목별로 보면 난민 발생 요인, 난민문제의 해결노력과 정책, 난민발생국과 수용국, 난민수용의 찬반 이유 순으로 다루고, 특히 난민 발생 요인, 난민문제의 해결노력과 정책을 비중 있게 제시하고 있다. 난민 관련 시각 자료는 총 12.4쪽으로 텍스트 자료와 달리 난민발생국과 수용국에 관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난민문제의 해결노력과 정책, 난민 발생 요인, 난민수용의 찬반 이유 순으로 나타난다. 탐구활동 자료는 총 6.1쪽으로 난민문제의 해결노력과 정책에 가장 많은 지면을 배정하고, 난민 발생 요인, 난민발생국과 수용국, 난민수용의 찬반 이유 순으로 다룬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텍스트 자료는 난민 발생 요인에, 시각 자료는 난민발생국과 수용국에, 탐구활동 자료는 난민문제의 해결노력과 정책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이는 주제별로 그 내용을 가장 잘 표상하는 자료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서별로 편차가 있지만, 세부 항목별 분량을 살펴보면 난민 발생 요인으로 텍스트 자료와 시각 자료의 경우 정치적 분쟁과 자연환경 변화 요인에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탐구활동 자료는 복합적 요인과 자연환경 변화 요인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난민발생국과 수용국 주제에 대해서는 모든 유형의 자료가 난민발생국의 위치와 실태 등에 관해 약 70~80%의 지면을 할애하고, 수용국에 관해서 약 20~30% 지면만을 제공한다. 난민수용의 찬반 이유에 관해서는 모든 교과서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지만 텍스트 자료의 경우 찬성 이유에 관한 서술 없이 반대 이유만을 제시하고, 시각 자료와 탐구활동 자료는 비교적 균형감 있게 소개한다. 난민문제의 해결노력과 정책에 대해서 텍스트 자료와 시각 자료 모두 세계 수준의 노력과 정책을 50% 이상 제시하고 있다.

3. 주제별 내용 분석

1) 난민 발생 요인

많은 교과서가 텍스트로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내전이나 분쟁으로 인하여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표 6. 「세계지리」 교과서의 난민 관련 주제와 세부 항목

항목	세부 항목	세부 내용
난민 발생 요인	민족·종교 갈등	민족, 종교 갈등으로 인한 난민
	정치적 분쟁	정치적 억압, 내전, 전쟁 등으로 인한 난민
	자연환경 변화	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 기후 환경변화로 인한 난민
	복합적 요인	여러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한 난민
난민발생국과 수용국	발생국 현황	발생국의 난민 규모와 실태
	수용국 현황	수용국의 난민 규모와 실태
난민수용의 찬반 이유	찬성 이유	인권 보호, 수용국 경제 발전, 수용국 위상 증가
	반대 이유	국가 안보 위협, 사회불안정, 경제적 부담
난민문제의 해결노력과 정책	개인 수준	난민 권리보호 운동 등 관심, 세계시민, 난민 의식
	지역 수준	지방자치단체, 지역시민단체들의 노력
	국가 수준	중앙정부 대응
	세계 수준	유엔난민기구, 유엔평화유지군 등 국제기구

www.kci.go.kr

표 7. 난민 주제별 세부 항목별 분량

주제 \ 자료 유형 / 분량		텍스트 자료		시각 자료		탐구활동 자료	
		줄수(줄)	비율(%)	쪽수(쪽)	비율(%)	쪽수(쪽)	비율(%)
난민 발생 요인	민족·종교 갈등	13.00	15.85	0.60	21.05	0.25	16.13
	정치적 분쟁	32.00	39.03	0.90	31.58	0.30	19.35
	자연환경 변화	21.00	25.61	0.85	29.83	0.50	32.26
	복합적 요인	16.00	19.51	0.50	17.54	0.50	32.26
	합계	82.00	100.00	2.85	100.00	1.55	100.00
난민발생국과 수용국	발생국 현황	7.00	77.78	3.65	69.52	0.45	81.82
	수용국 현황	2.00	22.22	1.60	30.48	0.10	18.18
	합계	9.00	100.00	5.25	100.00	0.55	100.00
난민수용의 찬반 이유	찬성 이유	0.00	0.00	0.50	45.45	0.20	40.00
	반대 이유	5.00	100.00	0.60	54.55	0.30	60.00
	합계	5.00	100.00	1.10	100.00	0.50	100.00
난민문제의 해결노력과 정책	개인 수준	14.00	19.71	0.60	18.75	0.30	8.57
	지역 수준	7.00	9.86	0.20	6.25	1.85	52.85
	국가 수준	13.00	18.31	0.50	15.63	0.45	12.86
	세계 수준	37.00	52.12	1.90	59.37	0.90	25.72
	합계	71.00	100.00	3.2	100.00	3.50	100.00

"정치적 요인에 따라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에서 민족 탄압, 내전, 분쟁 등으로 발생하는 난민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C 교과서, 78)
"폭력, 정치적 박해,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강제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하는 이주민과 난민이 발생하였다." (D 교과서, 20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 있지만, 안으로는 여전히 부족 중심의 생활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민족·종교적 차이가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교과서도 있지만, 그 근본적 원인이 서구열강들이 종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임의로 국경을 나누고 종족 간 분열 구조를 통해 통치한 식민 지배의 산물이라고 설명한 교과서는 없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겉으로는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 있지만, 안으로는 여전히 부족 중심의 생활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민족과 종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에라리온, 수단, 르완다 등지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져 많은 정치적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B 교과서, 175)
"국가 내 민족과 종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져 많은 인명 피해와 정치적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B 교과서, 175)

자연환경 변화요인으로 사헬 지대의 주변국의 사막화나 지구 온난화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난민이 발생한다고 기술한 교과서도 있다. 자연환경 변화는 대부분 식량 부족과 같은 경제적 빈곤 문제를 유발하고 이는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져 난민이 발생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사막화로 인해 국경을 넘지 않으나 자국 내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실향민'이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최근 이슈화된 시리아 내전도 사헬 지대의 사막화 등에서 비롯되었듯이 이 지역의 사막화는 정치·경제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난민 발생을 촉진한다." (A 교과서, 136)
"환경적 이주는 기후변화나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피해 이동하는 것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투발루 난민의 이동 등이 있다." (B 교과서, 72)

www.kci.go.kr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각 자료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막화와 경제적 빈곤이 결합하면서 내전 양상이 심화한 사례로 '사막화에 따른 분쟁, 다르푸르 내전'이라는 읽기 자료,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삶터를 잃은 기후난민의 사진, 사헬 지대 주변의 난민 현황 지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난민 발생 요인에 관한 탐구활동은 시각 자료와 연계한 읽기 자료를 제시한 후 자연환경 변화가 종족 분쟁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난민이 발생한다는 역학 관계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은 이들 지역이 정치적 갈등, 내전, 분쟁, 사막화에 시달리면서 난민을 배출하는 곳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한다.

4종 교과서 모두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의 개념과 한계를 설명하지 않은 채 난민 발생 요인을 서술하거나 탐구하도록 제시하다 보니 내전으로 인해 실패한 국가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자신의 삶터에서 더는 살지 못하고 떠나온 생존이주자의 경우 난민과 매우 흡사한 상황에 놓였지만, 난민협약에 따라 보호가 거부될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국가 실패나 기후변화로 발생한 난민의 경우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 공식적인 난민의 범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제시하고 이러한 유형의 난민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난민 발생국과 수용국

대부분 교과서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의 난민 발생국을 중심으로 난민 발생 유형과 현황을 제시하고, 수용국으로 발생국의 인접국이나 독일, 헝가리 프랑스, 미국 등을 언급하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 수단,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은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최근 주변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과 수니파 반군 간의 내전으로 시리아의 난민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A 교과서, 201)

위 출처: D 교과서, 144, 아래 좌 출처: A 교과서, 136, 아래 우 출처: B 교과서, 137.

그림 1. 난민 발생 요인(기후변화–사막화)에 관한 시각 자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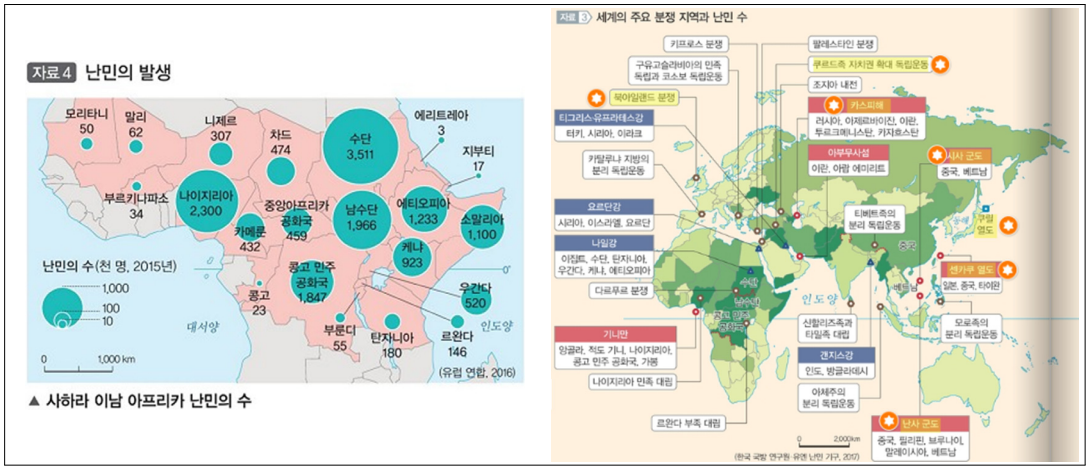
www.kci.go.kr

"난민의 대부분은 내전과 종교적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며, 자국에서 가깝고 경제적 여건이 좋은 유럽, 미국 등지로 이동한다." (C 교과서, 211)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싸고 국가 간이나 국가 내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C 교과서,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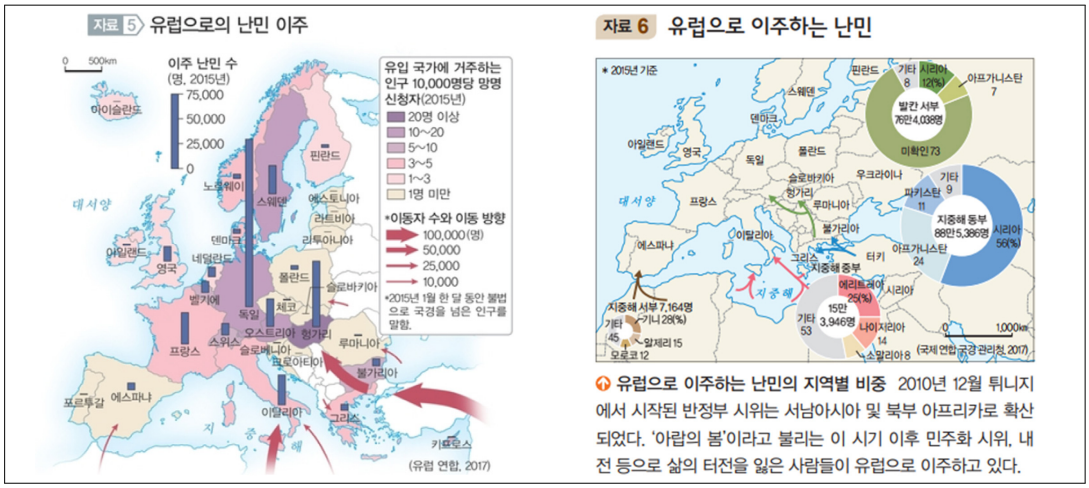
난민발생국과 수용국 현황에 관해서는 주로 통계지도나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보여준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난민 발생국으로 수단, 나이지리아,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케냐 등 국명을 명시한 지도나 세계의 주요 분쟁 지역과 난민 수를 나타낸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탐구활동도 남수단의 다르푸르 지역과 남태평양의 키리바시를 사례로 분쟁 유형을 비교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 세계 난민의 83%가 개발도상국에 체류하고, 이 중 27%가 최빈국에 체류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받아들인 난민이 10% 이하인데도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유럽을 수용국의 중심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으로 이주



좌 출처: A 교과서, 175. 우 출처: B 교과서, 196-197.

그림 2. 난민 발생국 현황 시각 자료 예시



좌 출처: B 교과서, 73. 우 출처: C 교과서, 79.

그림 3. 난민수용국 현황 시각 자료 예시

www.kci.go.kr

하는 난민을 단계구분도와 유선도 등으로 나타내어 수용국 현황을 보여준다. B, C 교과서는 유럽으로 이주하는 난민 지도를 제시하면서 유입국의 인구 대비 난민 신청자 현황과 지역별 난민 현황을 비교하도록 하였다.

교과서에서 제시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난민 대다수는 인접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난민발생국과 유사하거나 더 불안한 상황에 놓인 저개발국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세계지리」교과서에서 실제로 난민이 많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텍스트 자료와 시각 자료를 제시하고, 이들 저개발국이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이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점, 저개발국 난민촌에서의 난민의 삶을 조사하고 저개발국 난민 수용에 따른 문제해결을 주제로 논의할 기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난민수용의 찬반 이유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 근거는 주로 대단원 '공존과 평화의 세계' 중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노력' 단원에서 기술하고 있다. 텍스트 자료에서는 난민수용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가? 수용할 의무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예를 들어 B 교과서는 '제노포비아'를 언급하고, '지중해를 넘어 유럽으로 이주하는 난민들과 이들을 구조하는 모습', '유럽연합에서 '더는 들어올 수 없다는 문구로 난민수용을 제한하는 모습'의 삽화를 제시하면서 난민수용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묻는다.

> "2016년 온라인 영어 사전○○○ 닷컴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제노포비아다. 시리아의 난민 사태, 영국의 브렉시트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지구촌 사람들은 어느새 여러 사회 곳곳에 진입한 이방인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모국을 떠나 목숨을 건 이주를 감행하고 있는 난민과 이주민! 난민이 몰려드는 국가는 그들을 수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수용할 의무가 없는가?" (B 교과서, 200)

탐구활동에서는 주로 '난민수용에 관한 다양한 입장'을 주제로 난민수용국과 난민의 처지에서 토론해 보는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B 교과서의 경우 독일의 사례를 들어 적극적인 난민수용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서 난민들이 취업을 위해 독일어를 학습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반대로 영국의 사례를 들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생존의 위기에 처한 난민과는 달리 경제적 요인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난민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연합의 난민 분산 수용계획을 거부했다는 자료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난민수용에 관해 반대 견해를 찬성 견해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룬다.

난민수용의 찬반 이유에 관한 내용은 모두 선진국의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난민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독일보다 훨씬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우간다, 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의 입장에서 난민을 수용한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탐구할 기회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

4) 난민문제의 해결노력과 정책

4종의 교과서는 난민문제 해결노력의 주체로 유엔난민기구와 유엔평화유지군과 같은 국제기구의 국제 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 노력과 비정부기구들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개인이나 민간단체와 연대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 "국제 사회는 난민의 신체적 안전과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를 만들어 난민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A 교과서, 201)
>
> "우리는 지구촌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 구성원 모두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지역 간 경제 격차 문제, 빈곤 문제, 소수 집단의 인권 문제, 인종 및 민족 갈등, 난민 문제 등 국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균형 잡힌 관점으로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세계 시민의 태도를 길러야 한다." (C 교과서, 212)

유엔난민기구와 같은 공식적 국제기구 이외에도 세이브더칠드런, 국경없는의사회 등 비정부기구의 노력, 사막화 방지협약이나 아프리카 연합 활동과 같이 특정 목적의 협약이나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국제기구의 활동을 소개하기도 한다.

www.kci.go.kr

"사막화 방지 협약을 맺고, 사막화 방지와 사막화가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사막화가 진행 중인 지역의 주민들을 도와주는 한편, 사막화 지역에 나무를 심는 등 노력하고 있다." (B 교과서, 136)
"아프리카 연합은 국가 간 연대와 영토 보존, 민족 문제에 대한 공동의 이익 보호, 아프리카인의 권리 신장 및 생활수준 향상, 과학 기술의 공동 연구, 질병 퇴치와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C 교과서, 184)

'국제 난민 해결'이라는 주제로 모의 국제연합총회 상황을 제시한 후 자국의 처지에서 토론하고 결의안을 작성함으로써 자국의 입장과 국제적 인권 보호 노력 간 갈등 상황을 이해하도록 탐구활동을 제시한 교과서도 있지만 대부분 교과서는 국가 수준의 노력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난민발생국 지역 수준에서 하는 문제 해결 노력을 제시한 교과서도 있지만, 대부분 교과서는 세계적 차원의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적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계 시민의식을 강조할 뿐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국제 사회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고민하며, 이를 지역적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계 시민의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B 교과서, 198)

개인 수준의 노력으로 재능과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과 작곡가 등을 소개하거나 '시리아 난민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적어보고, 난민을 주제로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포스터 제작하기,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계획 세워보기' 등의 탐구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세계지리」 교과서에는 난민문제의 해결노력과 정책 관련하여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가 펼치는 활동을 설명하거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적 언술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내용 구조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활동에 개인이 참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그들이 해결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라고 치부하도록 한다.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규모의 지역과 국가 수준의 구체적 노력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실재성 있는 과제를 풍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V. 나가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4종의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4개의 대단원에서 난민을 중요하게 다룬다. 난민에 관한 교육내용은 발생 요인, 발생국과 수용국, 난민수용 찬반 이유, 난민문제 해결노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세계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난민을 보는 시선은 난민에 대하여 연민과 휴머니즘에 기반을 둔 우호적인 시각과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균형감 있게 제시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균형감은 자칫 명시적으로 난민에 대한 공감과 배려,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암묵적으로 난민수용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표방한 학습 목표와 달리 내용 구성이 암묵적으로 난민을 타자화하고 '그들'의 문제인 분쟁, 결핍, 기아와 같은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떠안게 되었다는 부정적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지리」 교과서 분석 결과 난민 내용과 관점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관련 대단원들에서 난민문제를 다루다 보니 최근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다른 지역의 난민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했다. 그 결과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는 정치적 갈등, 내전, 분쟁, 사막화에 시달리면서 난민을 배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난민발생국 대부분은 내전, 분쟁, 박해, 경제난 등 인도적 위기 상황에 빠져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교과서에서 내전, 분쟁, 경제난이 발생한 인과 관계의 복잡성과 맥락적 요인을 설명하지 않고 간략하게 제시함으로써 난민발생국은 폭력이 난무하고 법과 제도가 작동하지 않아서 내전이나 분쟁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게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전 세계 난민의 80% 이상이 개발도상국에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난민수용국으로 제시하여 빈곤한 국가가 유발한 난민을 선진국이 떠안은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는 문

www.kci.go.kr

제유발자로서 낙후한 개발도상국과 문제해결자로서 부유한 선진국이라는 이분법적 편견을 강화하는 서술 방식이다.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난민에 대한 개념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다룬 난민 대부분은 국가 실패나 기후변화로 발생한 난민이다. 국가 실패로 인한 난민이나 사막화로 인한 기후난민 등은 난민과 매우 흡사한 상황에 놓이지만, 공식적인 난민의 범주로 인정받기 어렵고 보호가 거부될 수 있다. 현대 난민은 주로 국가 실패나 기후변화에 따른 난민이므로 난민수용과 보호가 어렵고 그것이 난민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통해 난민 개념에 얽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세계지리」 교과서는 난민문제를 둘러싼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난민집단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난민 발생 요인과 난민수용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을 정치적·경제적 권력의 불평등한 세계구조 속에서 고찰하게 하는 학습활동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교과서는 난민이 겪는 복합적 문제와 다양한 상황을 여러모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기보다 같은 문제와 같은 상황에 놓인 동질적 집단으로 다루고 있다. 출신국, 수용국, 이주 과정, 이주 이유, 성별, 나이 등에 따라 난민의 경험은 개인마다 다르다. 이처럼 다양한 난민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실태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다.

난민문제는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문제로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 현재 여러 나라는 인도적 위기의 난민을 자국의 주권과 안보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하여 정치적으로 이들을 거부하거나 타국으로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난민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기후변화가 난민 발생국의 잘못이 아니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총체적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책임이다. 현재 「세계지리」 교과서는 난민문제 해결 주체로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관을 강조하고 개인 수준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윤리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인 참여가 가능한 국가나 지역 수준의 문제해결 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개인 수준에서도 난민촌의 삶을 조사하여 난민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을 스스로 파악하도록 하는 학습활동도 부족하다.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분쟁과 난민의 지정학적 역학 관계를 탐구하고, 저개발국이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이유와 실제 난민촌 삶을 조사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함으로써 난민문제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난민문제 해결노력과 주권국가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을 파악하고, 난민수용을 둘러싼 갈등을 불평등한 세계 권력 구조 속에서 성찰하며, 국가 수준과 지역 수준의 난민문제 해결노력을 소개하면서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

1) 2021 유엔난민기구 연례 보고서(2022)에 따르면 8천930만 명은 등록 난민 2,130만 명,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등록 580만 명, 국내 실향민 5,320만 명, 난민 신청자 460만 명, 해외 거주 베네수엘라 실향 440만 명을 포함하고 있음.

2) 분석 대상인 4종의 「세계지리」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출판사	지은이	출판 연도
A	금성출판사	황병삼 외 5인 (황병삼, 천종호, 이준구, 이해창, 천재호, 강재호)	2019
B	미래엔	박철웅 외 8인 (박철웅, 조성호, 강은희, 이강준, 홍철희, 박병철, 김지현, 백승진, 최재희)	2019
C	비상교육	최병천 외 16인 (최병천, 유성종, 강성열, 김덕일, 우연섭, 이우평, 김시구, 이훈정, 엄주환, 남길수, 김차곤, 이화영, 이두현, 강문철, 윤정현, 김진형, 방완석)	2019
D	천재교육	신정엽 외 8인 (신정엽, 이정식, 이경희, 양희경, 김봉수, 유상철, 박재현,박천영, 박철진)	2019

참고문헌

강순희, 2022,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저출산·고령화 내용 분석,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고상두·김예슬, 2012, "러시아 제노포비아의 실태와 원인 분석", 아태연구, 19(1), 169-192.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제2015-74

www.kci.go.kr

호 일부 개정).
권한용, 2016,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난민정책에 대한 시사점", 아주법학, 10(1), 213-249.
김갑철, 2018, "글로벌 시민교육의 지리적 격차와 교육 정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1), 206-221.
김보나, 2016, 중등 사회교과서에서 난민 관련 내용 분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소순·조철기, 2010,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및 편견 분석", 중등교육연구, 58(3), 87-112.
김영술, 2018, "독일의 난민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변화의 연구", 분쟁해결연구, 16(2), 99-134.
김용환, 2018, "혐오와 관용의 관점에서 '이방인(난민)' 바라보기", 한국가톨릭철학회, 31, 5-34.
김원건·오종진, 2022, "한국과 터키의 난민수용 비교연구", EU연구, 63. 339-374.
마사C. 누스바움 저, 강동혁 역, 혐오에서 인류애로, 뿌리와 이파리(Martha C., 2010, Nussbaum, *From Disgust To Humanity*, Oxford University Press).
박순용, 2015, "난민문제를 통해서 본세계시민교육의 과제에 대한 고찰", 한국국제이해교육연구, 10(2), 77-99.
박인현, 2021, "난민법 현황과 난민 현실", 한국법과 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28-47.
박종일·이태정·유승무·박수호·신종화, 2013, "난민의 발생과 국민국가의 대응". 민주주의와 인권, 13(1), 199-23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1. 7.
석인선·황기식, 2019, "제주 예멘 난민사태와 인간안보", 민족연구, 74, 92-115.
설규주, 2018, "사회 교과서 속 다문화 관련 내용 분석 연구", 시민교육연구, 50(2), 99-135.
손영화, 2019, "난민문제에 관한 서론적 고찰-난민 수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30(2), 27-58.
송영훈, 2014, "테러리즘과 난민문제의 안보화", 국제정치논총, 54(1), 195-230.
송영훈, 2016, "난민의 인권과 국가안보: 한국 난민법 개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담론 201, 19(3), 55-82.
신옥주, 2018, "난민법 개정을 위한 독일의 망명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헌법재판연구, 5(2), 209-249.
신혜인, 2018, "대한민국과 난민 그리고 언론의 역할", 관훈저널, 148, 41-48.
안성경, 2017, "독일의 난민법(AsylG) 개혁의 현황과 시사점", 유럽헌법연구, 23, 389-425.
오윤경 외 20인, 2000, 현대국제법, 박영사.
유종열, 2016,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인구교육 내용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3), 759-783.
이병하, 2017, "난민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환대의 윤리", 국제정치논총, 57(4), 199-235.
이신화, 2015, "국제기구와 인도적 의제: 이주 및 난민 문제", 박흥순, 서창록, 박재영, 이신화, 국제기구와 인권난만이주, 도서출판 오름, 195-231.
이신화, 2017, "분쟁과 난민의 역학: 아프리카 난민의 인도적 위기와 안보적 위협", 21세기정치학회보, 27(1), 151-175.
이용호, 2007, "난민개념과 그 보호", 국제법학회논총, 52(2), 311-338.
임종섭, 2018, "동일한 문제를 다르게... 한국 언론의 난민보도", 관훈저널, 148, 33-40.
최혜림, 2020, 독일 난민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종현·황승종, 2018, "우리 난민법제에서 가족결합 원칙의 의의와 한계", 법학연구, 59(2), 287-320.
허영식·강현석 (2018) "난민문제와 난민정책에 관한 연구동향과 함의 : 독일과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8(1), 3-32.
Adamson, F. B. and Tsourapas, G., 2019, The migration state in global south: Nationalizing, developmental, and neoliberal models of migration management,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online first version.
Betts, A., 2013, *Survival Migration: Failed Governance and the Crisis of Displacement*, Cornell University Press.
Betts, A. and Collier, P., 2017, *Refuge: Transforming a Broken Refugee System*, Allen Lane, London.
Caldor, M., 2013, *New & Old Wars*,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ntle, T., 2012, *Interculturalism: The New Era of Cohesion and Diversity*, Palgrave Macmillan, London.
Castles, S. and Miller, M. J., 2008,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The Guilford Press, New York.
Cooper, S., Olejniczak, E., Lenette, C., and Smedley, C., 2017, Media coverage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n regional Australia: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Media International Australia*, 162(1), 78-89.
Langmann, E., 2011, Representational and territorial economies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elcoming the other at

www.kci.go.kr

the limit of cosmopolitan hospitality.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9(3-4), 399-409.

Mogire, E., 2013, *Victims as Security Threats: Refugee Impact on Host State Security in Africa*, Routledge, New York.

OXFAM, 2016, A Poor Welcome from the World's Wealthy, *OXFAM Media Briefing*, 2016 July 18.

Smyer, W. R., 1985, Refugees: A Never Ending Story, *Foreign Affairs*, 64, 154-68.

UN, 2001, *Replacement Migration: Is it a Solution to Declining and Ageing Populations?*, UN, New York, NY. Dep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HCR, 2001, *The State of the World's Refugees 2000*, UNHCR.

UNHCR, 2020, *Global Trends in Forced Displacement 2020*, UNHCR.

UNHCR, 2022, *UNHCR Global Report*, UNHCR.

서울경제, 2019년 12월 19일자, ""저출산·고령화 해법은 이민?" 캡틴 아메리카 후임으로 흑인 팔콘이 된 이유", https://www.sedaily.com/NewsView.

연합뉴스, 2021년 6월 18일자, "세계 인구 100명 중 1명은 난민...8천240만 명 '사상 최다'", https://www.yna.co.kr/view.

접 수 일 : 2022. 10. 31
수 정 일 : 2022. 11. 29
게재확정일 : 2022. 11. 30

교신: 박선미, 22212,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sminha@inha.ac.kr, 032-860-7864)
Correspondence: Sunmee Park, sminha@inha.ac.kr

www.kci.go.kr